

작지만 소중한 얼굴

김종광 소설가



요새 시골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어린이, 청소년이 드물다. 그애는 18년 동안, 고작 스물다섯 가구는 내 고향동네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이였고 어린이였고 중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이다**. 그런 동네 구십 골짜기가 일개 면을 이루고 있으니 면의 초등학교, 중학생 숫자도 백 명 넘기가 어려웠다. 자기 동네에서는 다 독보적인 어린이, 청소년이었지만 한 동아리에 모아놓으면 유독 눈에 띄는 애가 있기 마련이다.

그애는 팔방미인 소리를 들으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름을 날렸다. 특히 스포츠에서 찬란했다. 소녀였지만 모든 소년보다 운동능력이 탁월했다. 두름성도 좋아서 초·중학교 내내 실질적인 리더였다. 엉뚱한 성격도 있어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일화도 숏하게 남겼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애는 면 전체 늙어가는 이들의 귀염둥이였다.

“부전여전이라더니 딱 그렇구먼. 어찌면 그리 지아빠랑 판박이일까.”

그애 역시 한 학년에 삼백 명쯤 되는 시내 고등학

교에 다니면서 평범해졌다. 시골 고교도 오로지 대학만 바라본다. 공부는 개성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애는 개성을 선택했다. 래퍼가 되기로 한 것이다. 그애의 노력은 진행 중이다. 그애 얘기를 소설로 써보고 싶었다. 래퍼가 꿈은 아니지만 힙합 마니아인 내 아들이 지적했다. “랩도 모르면서 랩소설을 쓴다고요?” “랩소설을 쓰겠다는 게 아니고 시골 힙합소녀의 시각으로 현재의 농촌을 그려보겠다는 거야.” “암튼 랩을 하긴 할 거잖아요? 알고 써야죠.”

아들은 과거의 랩에 연연하는 아빠가 망신당할까봐 걱정되었는지, 아까운 공부 시간 할애해서 이 시대의 랩을 가르쳐주었다. 아무튼 랩을 흥내 내어 소설 한 편을 썼다. 마지막에는 힙합소녀의 자작곡인 양, 랩 가사 한 수를 덧붙이기도 했다. 무료 비트에 맞춰 녹음파일을 만들기도 했다. 아들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제대로 ‘오버’했다.

미국 어느 시골 동네, 터무니없는 전설.

앞산의 사람 얼굴 닮은 크나큰 바위.

언젠가 큰 바위 얼굴 빼박은 인물이 찾아와,
 마을을 왕창 발전시킬 거라는 얘기.
 그 전설을 굳게 믿고 그 인물을 기다리던 아이.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도
 그 인물은 오지 않았어. 오지 않았어.
 기다리다 나이 든 그 사람.
 토박이로 남아 동네 일 다한 사람.
 그가 없으면 동네가 굴러가지 않아.
 반장, 이장, 동창회장, 한우회장, 협의체장...
 감투가 있든 없든 뭐든 앞장 일꾼.
 언제부턴가 먼민들이 입을 모았어.
 당신이 바로 우리 동네 큰 바위 얼굴이라고.
 당신이 바로 우리 동네가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아들의 냉정한 평가. “라임이 1도 없네.” 솔직히
 아들이 말하는 ‘라임’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웃고 말
 았지만 나름대로 흡족했다. 시도 아니고 소설도 아
 니지만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노래
 가사 같은 글을 꼭 한번 써보고 싶었다.

초·중·고 12년 동안 국어교과서에서 배운 좋
 은 글 중에 유독 ‘큰 바위 얼굴’만 생생하다. 오래도
 록 내 아버지를 우리 동네 큰 얼굴이라고 우려했다.
 80 평생 시골 토박이 농사꾼이었던 아버지. 냉정하
 게 말해서 아버지는 멋진 농사꾼이긴 했지만 큰 얼
 굴은 아니었다. 팔방미인 그애의 아빠, 내 사촌형 같
 은 이야말로 랩가사에 적어놓았듯이 정녕 큰 얼굴
 이었다.

사실 가는 곳마다 큰 얼굴이 있었다. 잘 찾아보면

분명히 있었다. 큰 얼굴이 한 명도 없다면 그곳은 이
 미 없을 테니까. 큰 얼굴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
 니다. 큰 얼굴이 아무 데서나 나는 것도 아니다. 물
 이 좋아야 좋은 물고기가 나온다고, 작지만 노력하
 는 얼굴들이 많아야 그중에 큰 얼굴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큰 얼굴은 될 수 없지만, 큰 얼굴을 진정성
 있게 따르는 사람들도 중요하다. 요즘 큰 얼굴이 드
 문 것은 진정 어린 사람, 양심과 상식에 따르며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가 드물어졌기 때문인지도 모
 른다.

소설만 봐도 그렇다. 부족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
 하는 작은 소설가들이 많아야, 언젠가 진정 큰 얼굴
 같은 소설가가 돌출하여, 이 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
 각과 감정을 김홍도나 신윤복처럼 제대로 그려줄
 데다.

하지만 큰 얼굴도 같고닮지 않으면 닳아버린다.
 케케묵은 큰 얼굴보다야, 큰 얼굴을 기다리는 작지
 만 소중한 얼굴들이 더 낫다. 힙합 마니아 내 아들이
 들으면 어이없어하겠지만, 지금 힙합계의 큰 얼굴
 들이 벌써 삭아버렸다면, 우리 동네 시골 힙합소녀
 의 노력 같은, 저마다 간절한 도전이 강을 이룬 뒤에
 야 큰 래퍼가 나오지 않겠는가. 언젠가, 그애가 우리
 가 기다리던 그 사람으로 빛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

※김종광: 1971년 충남 보령 출생.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졸업. 1998년 〈문학동네〉에
 단편소설로 데뷔. 200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희곡 당선. 신동엽창작상, 제비꽃서민
 소설상,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 류주현문학상 등 수상. 소설집 〈경찰서여, 안
 녕〉〈모내기 블루스〉〈처음의 아해들〉〈눌러 가자고요〉, 장편소설 〈야살쟁이목〉
 〈똥개 행진곡〉〈조선통신사〉, 산문집 〈웃어라, 내 얼굴〉 등 출간.

※본문의 초록색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 점역(點譯)했습니다.